

코로나에 이혼 늘어난다고?...되레 줄었다

가정 불화 등 증가 예상 '기우'

광주가정법원 소송 감소 추세

2019년 1786건→지난해 1583건

불황에 재산 줄고 소송비용 부담

인구 감소에 이혼속려제 효과도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기간 이혼 소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사태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내 불화와 이혼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빚나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혼이 감소세를 보이는 첫 번째 원인을 경기침체로 꼽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 그 여파로 이혼사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정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재판상 이혼소송 및 협의 이혼 등)은 2018년 1731건에서 2019년 1786건으로 다소 올랐다. 그러나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1653건으로 1년만에 7.4%인 133건이 줄었다. 이어 2021년에는 1583건으로 2년전보다 203건(11.3%), 1년전보다는 70건(4.2%) 감소했다.

광주가정법원 1심에 지난해 접수된 소송 1583건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재판상의 이혼'으로 1145건에 달했다. 친생자판계 존부의 소 161건, 손해배상 소송 117건, 기타 92건, 혼인의 무효·취소 19건 등의 순이다.

2020년도에 광주지정법원 1심에 접수된 소송 1653건을 봐도 재판상 이혼 사건이 1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친생자 존부의 소(179건), 기타(92건), 손해배상 소송(83건) 순이었다.

최근 2년동안 광주 가정지방법원 외에도 재판상의 이혼소송은 순천지원(552→497건), 해남지원(102→96건), 장흥지원(55→38건) 모두 감소세

였다. 다만 목포지원만 2020년 310건에서 2021년 338건으로 다소 늘었음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이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우에 불과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이혼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경기침체 기에는 분할할 재산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혼사건이 늘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결국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는 "인구 감소와 결혼이 줄고 있는 점도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혼 후 4년 이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지속적으로 결혼 건수가 줄다 보니 당연히 이혼관련 소송도 수 박에 없다는 것이다.

김영중 확산에 따른 외출자제를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다. 코로나 확산시기 법원 방문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또 2007년 이혼속려기간 제도가 신설되면서 이혼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정서 조신여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한 달정도 다시 이혼을 생각하도록 하는 속려기간이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영향속에 이혼서류 절차상 법원이나 행정복지센터를 거치는 활동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이혼소송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코로나 거리두기가 끝나 결혼식이 늘고 있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 오히려 그 여파로 이혼이 서서히 늘 것이라 지적도 나온다.

10여년간 부부관계 상담을 하고 있는 박미향 광주서구가정상담센터 팀장은 "요즘에는 황혼의 부부가 갈등을 겪을 경우 당사자들보다 자녀들이 나서 이혼을 장려하는 실정이다"면서 "코로나로 잠재됐던 불만이 활동이 재개되면서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신용 뱀탕 만들려고...

뱀 4000마리 불법 포획

영산강환경청, 60대 고발

보신용 뱀탕 등을 만들기 위해 뱀 400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업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일 장성군 북하면의 한 자택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4100여 마리의 야생 동물을 불법으로 가공해 보관한 60대 남성 A씨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자택에 있는 냉동고에서는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 37마리, 뱀 4100여마리,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가 발견됐다.

영산강청은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생물과 창애와 울무 등 불법엽구 66점을 수거했다고 전했다.

A씨는 몸보신용 탕을 만들기 위해 야생동물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동물단체 비글스조너트워크 등 민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영산강청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지자체 및 경찰과 협력해 단속할 예정이다. /전홍희 기자 strong@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절차 중단하라”

호남 시민단체·지역 의회

호남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 의회가 7일 한빛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과 전북도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 정읍시의회 등은 이날 “원안위는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 보고안건 상정을 취소하고, 모든 재가동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8일 열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빛4호기를 보고안건으로 재상정한 것은 사실상 지역주민을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빛4호기 격납건물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구조건전성평가 및 검증 등을 다시 시행하고, 핵발전소 인근 주민과 지자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역설했다.

영광군의회도 이날 한빛원자력본부에 방문한 한빛원전 현안대책 협의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전달했다.

영광군의회는 결의문에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시행된 민관합동조사에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등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지난 7월 원안위에서는 국내 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대부분이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한빛원전 3·4호기 부실공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4호기 재가동을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빛원전 4호기는 지난 2017년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최대 157cm 깊이의 콘크리트 공극이 대량 발견돼 가동을 멈췄다. 원안위는 8일 열리는 회의에서 한빛4호기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 보고를 받고 재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전홍희 기자 strong@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징계 철회를”

광주전남 경찰직장협 회장단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7일 공동명의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류 총경의 중징계를 철회할 것’과 ‘경찰 조직 안에서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었다.

회장단은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면서 “이에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징계를 권

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회장단은 “류 총경은 지난 7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내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주말에 휴가를 낸 전국 총경 및 서장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세미나 형식으로 회의를 개최했을 뿐”이라면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 총경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계속해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감찰 조사를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반값다” 레미콘 타설

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 총파업 14일째를 맞은 7일 총파업으로 차질을 빚었던 시멘트 출하량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솟음이 띄고 있다. 이날 광주시 동구 금남로의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타설작업이 진행됐다. /나경주 기자 mjna@

광주서 로드 택승 차량 접촉사고 잇따라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기아 오토헤드 광주가 수출 차량을 목포신항까지 개별운송(로드 택승)하기로 한 첫 이날 7일 광주 곳곳에서 택승 차량 접촉사고가 잇따랐다.

택승업체인 현대글로벌비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무진대로 어등대교 앞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로드 택승 중이던 기아 스포티

지 완성차가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차량은 앞서 가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충격에 밀려나간 화물차 또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쳤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택승 차량은 전면부가 크게 파손돼 견인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5732	1	남구 서문대로704번길10, 101동 8층 806호 [진행률: 80%] 387,000,000	아파트	387,000,000	2022타경 5732
2022타경 5848	1	장성군 북이면 신영원길 146-1 1층83, 82㎡ 2층42, 06㎡ 지시와 합계 총35, 2㎡ [물건번호: 1: 지시와 건물] [단축보증금: 2.2㎡, 단축차양 12, 0㎡] 및 지시상채수속 [소나무, 사과나무 등] [각매각포함]	대	294,517,500	2022타경 5848
2022타경 72282	1	곡성군 곡성읍 요천리 612-13 195㎡ [감정평가액: 20,864,000원] 국공전 매각대상 1㎡ [소채별매] [감정평가액: 20,864,000원]	대	20,864,000	2022타경 72282
2022타경 5114	1	나주시 반남면 용덕리 4-6 593.1㎡ [지시와 건물] [단축보증금: 2.2㎡] 토사 4-8 492.6㎡ 토사 4-11 598.9㎡ 토사 4-13 102.7㎡ 토사 4-14 333.1㎡ [물건번호: 1: 목책1-6지시/다상맹지, 목책1-6공부상지목역이나목책1-다상열부유경지, 본묘부지, 목책2-다상열부유경지, 목책3-휴경지, 목책4-다상열부유경지, 목책5-휴경지 및 일부본묘부지, 목책6-휴경지 및 일부본묘부지]	전	100,914,000	2022타경 5114
2022타경 69453	1	도수유원지, 중로3구에지축및현황일부도로, 정착한지적경계측량요 토지 지산동 24 112㎡ [토지중일부도지계획시설유원지, 중로3구에지축및현황일부도로, 정착한지적경계측량요] 토지 지산동 25 89㎡ [토지취득자격증명요] 토지 지산동 26 483㎡ [토지중일부도지계획시설유원지, 중로3구에지축및현황일부도로, 정착한지적경계측량요]	전	88,944,000	2022타경 69453
2022타경 69682	1	영광군 군남면 용덕리 437-4 2283㎡ 지시와 건물1, 8㎡, 관청1차신착취제외의 건물 [1,8㎡ 관청]과, 지시와 건물 [관청1차] 및 수목 [감나무, 배롱나무, 자두나무, 단풍나무 등] [각매각포함]	대	105,754,400	2022타경 69682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71081	1	화순군 동백면 구암리 신79 21719㎡ [임야 특성상 특출한 현장조사방법으로는 지적경계부근 및 분묘묘고 등 불확실한 불가한바, 본묘묘소채여부지적경계측량필요함]	임야	66,796,700	2022타경 71081
2022타경 71487	1	영광군 군남면 용덕리 118 1081㎡ [지적상 북서측으로 소독도로와 접해하며 소대로로서 현상임]	대	65,096,000	2022타경 71487
2022타경 5961	1	나주시 나주로 147 단축250, 58㎡ 부속건물 488지분전부	대	169,798,680	2022타경 5961
2022타경 70941	1	나주시 산포면 산재리 495-2 990㎡ 지시와 창고 65㎡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76-57 1층57, 78㎡ 단축255, 08㎡ 부속건물 단축광 [69, 12㎡ 37, 40㎡ 15, 90㎡] 나주시 산포면 산재리 495-5 191㎡ 지시와 창고3㎡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76-84 단축52, 61㎡ [공부상임면적구조기외지분단축52, 61㎡ 이 나일남면현장조사에중추당첨회 [21, 09, 07 건축허가과-47166]되어일발목구2층 [1층6 2, 73㎡, 2층52, 61㎡, 연면적115, 34㎡, 용도: 1, 2층우산각]으로제외되었으며일발건축물대장관련항유사하여일발건축물대장기준으로감정평가함]	대	3,389,758,200	2022타경 70941
2022타경 71081	3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447-2 357㎡ [양해면 900/25350, 김동수, 김지선, 김동현 200/25350, 유호성, 우영우, 우송남 2600/25350 지분전부]	구거	3,569,800	2022타경 71081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71357	1	북구 무등로180번길12, 9층 934호 21, 70㎡ [근린시설]	근린시설	27,000,000	2022타경 71357
2022타경 71418	1	사용부지: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50-27, 201동 502호 [송림리, 청명필리(아파트)] 특목번호: 315노2629 차량: K7 연식: 2020년 [감정평가수행거리: 61, 218km]	자동차	30,000,000	2022타경 71418
2022타경 5961	1	나주시 산포면 산재리 495-2 990㎡ 지시와 창고 65㎡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76-57 1층57, 78㎡ 단축255, 08㎡ 부속건물 단축광 [69, 12㎡ 37, 40㎡ 15, 90㎡] 나주시 산포면 산재리 495-5 191㎡ 지시와 창고3㎡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76-84 단축52, 61㎡ [공부상임면적구조기외지분단축52, 61㎡ 이 나일남면현장조사에중추당첨회 [21, 09, 07 건축허가과-47166]되어일발목구2층 [1층6 2, 73㎡, 2층52, 61㎡, 연면적115, 34㎡, 용도: 1, 2층우산각]으로제외되었으며일발건축물대장관련항유사하여일발건축물대장기준으로감정평가함]	대	3,389,758,200	2022타경 596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윤지연